

# 여수 유리하지만 결선투표가 가른다

판세 분석과 전략



**유럽 36개국**  
폴란드 지지국들이  
2차 투표 승부 좌우  
적극적 공략 필요

**미주 27개국**  
한국 최대 지지기반  
카리브·중미 국가  
고정표 이탈 없어야

**아프리카·중동 29개국**  
지역적으로 가깝고  
종교적으로 밀접  
모로코 지지성향 강해

**아시아 13개국**  
일본 지지 여부 관건  
이슬람 국가로 부터  
확실한 지지 얻어내야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한국시각 27일 새벽 3시)이 오늘로 13일 남았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의 판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략을 알아본다.**

◇총괄=한국(여수),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있다는 분석이 대세다. 한국은 유치경합국 가운데 월등한 경제력과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 앞선 외교력 등을 내세워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3개국을 놓고 실시하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1, 2위 국가 간 결선투표를 벌이게 돼있는 개최지 결정 방식에 따라 방심은 금물이다.

2012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가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은 13일 현재 모두 112개국. 13일까지 한국은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많은 서면지지를 받아 기선을 제압했으나 절반 확보에는 10여 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 지지국은 우리보다 20여 곳 적으며 나머지는 폴란드를 지지하거나 유보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권=가장 많은 36개 회원국이 분포하고 있으나 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유럽국가의 성향을 감안할 때 폴란드에 몰표는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 지지국가들이 2차투표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우리나라가 집중공략해 왔다.

특히 서유럽에 비해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동유럽은 현

지 조업라인을 가동 중인 현대·기아차 등 연고가 있는 민간기업이 표발을 일궈온 데다, 상당수 국가로부터 2차 투표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대수이다.

◇아시아·미주=아시아(13)와 미주(27)는 우리나라 최대 지지 기반이다. 이 가운데 카리브와 중미 국가들은 우리가 몰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파악돼 일찌감치 고정표 다지기에 들어간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이 독도문제와 연안수역 다툼 등을 의식해 최근 여수엑스포 개최에 반대사를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해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같은 아시아의 최인접국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여기에다 전통적인 우방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아프리카·중동=아프리카(19)와 중동(10) 국가는 지역적으로 가깝고 종교적으로 밀접한 모로코 지지성향이 강하다. 아프리카·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단결력이 강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려는 모로코 지지자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 관건은=모로코가 지지 기반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BIE회원국 늘리기에 나서 본격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진 후 14개국이 신규 가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모로코 지지가 6곳인데 반해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8개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꼭 붙여야 할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고정표 다지기 ▲유럽을 중심으로 한 2차 투표전략 시행 ▲우호국의 BIE회원국 가입 증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 세 사령탑에 듣는다

## “끝까지 방심않고 유치활동 총력”

### 김재철 유치위원장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은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이 올해 5월 98개국에서 13일 현재 111개국으로 13개국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박람회 유치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치위는 모로코, 폴란드와의 유치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파리에 상주하고 있는 77개국 BIE대표를 상대로 한 막판 유치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재계가 합심, 마지막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1차 투표서 최대한 많은 표 확보”

###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최근 BIE회원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지지국을 결정하지 못한 국가도 30여 곳에 달하고 있어 막판까지 여수유치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전남도와 여수,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만큼 27일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 투표에서 한국이 BIE회원국 중 2/3 이상의 표를 얻어 개최국으로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경쟁국들보다 많은 표를 확보할 경우 ‘여수 대세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1차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3년여 동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왔던 여수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27일 파리에 ‘여수 코리아’ 외칠 것”

### 오현섭 여수시장



오현섭 여수시장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14일 앞둔 13일 “여수 박람회 유치를 100% 확신하고 있다”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수시민들과 함께 막바지 투혼의 불꽃을 태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심정은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처럼 긴장과 초조, 설렘, 기대감이 함께 얹혀 있는 상태”며 “필생즉사(必生即死), 필사즉생(必死即生)의 각오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현재 중동·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유치전을 하고 있는 모로코만 경계한다면 최종 승리는 여수의 것”이라며 “시민들도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울려 퍼지는 ‘여수 코리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영입관람권을 드립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권 1000장

1588-0000

<b>신청방법</b>	<b>신청기간</b>	<b>신청대상</b>	<b>신청처</b>
신청서 작성 후 신청처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2007.11.14 ~ 2007.11.21	18세 이상 성인	여수시청, 여수시문화재단, 여수시문화재단
<b>신청비</b>	<b>신청비</b>	<b>신청비</b>	<b>신청비</b>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b>신청비</b>	<b>신청비</b>	<b>신청비</b>	<b>신청비</b>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b>신청비</b>	<b>신청비</b>	<b>신청비</b>	<b>신청비</b>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